

## 제72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19.04.18.(목), 15:00~17:30
2. 장 소 : 율곡관 제1회의실
3. 참 석 : 김상배 의 장, 김대중 부의장, 강주영 평의원, 윤호섭 평의원, 이동렬 평의원, 조현주 평의원, 노시평 평의원, 만성웅 평의원, 이삼구 평의원, 김상서 평의원, 윤인석 평의원(총 11명 참석)  
(불참 : 윤태영 평의원, 김준형 평의원)

### 4. 의안

- 평의원회 구성 현황 보고 및 의장 선출
- 심의 사항
  - 학칙 개정(안)
- 자문 사항
  - 2018학년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결산(안)

### 5. 주요 회의결과

#### 가. 평의원회 구성 현황 보고 및 의장 선출

-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(임기 : 2018.01.20.~2020.01.19.)

구분	소속	직위	성명	비고
교원대표 평의원	전자공학과	교수	김상배	신임
	법학전문대학원	교수	윤태영	
	화학과	교수	윤호섭	
	e-비즈니스학과	교수	강주영	
	의학과	교수	김대중	
직원대표 평의원	총무팀	팀장	이동렬	
	병원경영팀	팀장	조현주	
학생대표 평의원	건축학과	총학생회장	이성호	신임
	교통시스템공학과	공과대학 학생회장	오설빈	신임

<간서명 란>

의 장 김 상 배

동문대표 평의원	(주)넥스아이티	대표	노시평	
	(주)아산상조	부회장	만성웅	신임
교외인사	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	교수	김준형	
	(주)해동산전	대표	이삼구	

○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김상배 평의원을 의장으로, 김대중 평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함

## 나. 심의사항 - 학칙개정(안)

○ 기획팀장이 학칙개정(안)을 설명함

### [주요 개정내용]

관련조항	개정 내용
제8조, 별표2, 별표4	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명칭을 인공지능·데이터사이언스학과로 변경,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구강보건학과 신설
제9조, 별표5	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전공의 공학인증 중단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, 글로벌IT전공 신설
제24조	글로벌IT전공은 소정의 연수과정 마친 경우 4학년 편입 허가하는 조항 신설
제43조	글로벌IT전공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대상에서 제외
제50조	경영대학, 소프트웨어학과(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전공) 졸업이수학점 변경, 소프트웨어학과(글로벌IT전공) 졸업이수 학점 설정

○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학칙개정(안)은 일부 문구를 수정 제안하여 심의 의결함

- 제24조 제2항 ‘소정의 연수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’ 문구 삭제
- 편입학의 자격 요건은 학칙에 담지 않고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학칙 개정(안)에서는 삭제 제안

## 다. 자문사항

○ 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(안)

### 1) 보고사항

- 총무처장이 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(안)을 설명함.

<간서명 란>

의 장 김 상 배

## 2) 자문사항

- 현재 자금계산서에 학부생과 대학원생 장학이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있음. 대내외 지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부생 장학이므로, 학부생과 대학원생 장학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 있음.
-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임. 주요 원인은 CK사업으로 인한 정원 감축, 1학년 중도탈락률 증가로 분석되나,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전교적 차원의 대응 노력이 부족했음. 1학년 교육과정 개선을 포함하여 학교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체계적 노력을 요청함.
- 학교 예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고 보조금임. 국고 사업에서 탈락하면 예산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므로, 국고사업 관리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임. 사업별로 학교의 자체적인 중간평가를 거쳐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.

<간서명 란>

의 장 김 상 개

- 본교의 경우 법인 전입금 부담률이 77% 수준에 머물러 있음. 즉각적인 100% 부담은 어렵더라도 2~3년 안에 100% 부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을 요청하여야 함.
- 기부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. 기부자들의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또는 기타 특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개발하고, 이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기부금을 유치하는 등 기금 모금의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.
- 지출 부분에서 이공계열 기계 기구 구입비가 감소하고 있음. 이는 이공계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. 모든 예산항목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늘릴 곳과 절감 또는 삭감할 곳을 선별하여 선택적 집중이 이루어져야 함.
- 학교 예산 대부분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어 자금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, 선택적 집중을 통하여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, 개발, 운영해 나가야 함.
- 외국인 학생 유치는 학교의 수익 증대 방안 중 하나임. 예산안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도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수정을 제안함.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수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학생 유치 노력의 필요성과 유치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.
- 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동문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동문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애교심을 고취하고, 학교 프로그램 참여도를 제고하여 기부금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.
- 평의원회의 자문내용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어 지속적인 학교발전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에서 다음 평의원회부터는 이전의 평의원회 자문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문을 진행하기로 함.

## ○ 2018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(안)

### 1) 보고사항

- 행정부원장이 2018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(안)을 설명함

<간서명 란>

의

장 김 상 계

## 2) 자문사항

- 의료수익이 계획대비 초과 달성되어 병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컸던 것으로 보임.
- 권역의상센터는 국내 최고로 알려져 있으나, 다른 분야의 명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. 대표적인 분야 및 센터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병원의 운영 사정이 좋을 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.
- 연구기금을 조성해서 학교와 의료원의 연계 연구를 incubating 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학교와 의료원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주었으면 함.
- 요양병원 건립에 매년 상당 비용이 투자되므로 이익 배분 문제나 흑자 전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.

